



# 자전거·경차 ‘보물단지’ 대형·경유차 ‘애물단지’

## 스쿠터 판매 급증... 절전형 상품 인기

기름값이 8달 2천원대를 넘어서는 초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가전 업계와 유통업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경유차가 외면당하고 경차와 LPG차량이 각광을 받고 있고, 유통업계에서는 절전형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웃고=기름값 부담으로 출·퇴근 교통수단을 바꾼 직장인들이 늘면서 스쿠터와 자전거 판매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50cc이하 스쿠터의 경우 번호등록 의무가 없는 데다, 한 달 유지비가 10만원 이내여서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 큰 인기다.

광주시 동구 H오토바이센터 업주 김모(39)씨는 “평소 한 달에 4~5대 밖에 팔리지 않던 스쿠터가 이달 들어서 13대 팔렸다”고 말했다.

남구 C 자전거 판매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대수가 30% 늘었다. 특히 들어 27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특히 차량의 기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용 선풍기 구입에 나서면서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차량용 선풍기 판매대수가 70% 이상 신장했다. 경차 ‘모닝’은 울어들어 이날 현재 2천600여대가

팔려 지난해 판매 대수의 2배를 훌쩍 넘겼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물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절전형 샤워기와 차량용 선풍기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며 “차량용 선풍기 판매대수는 지난해에 비해 75% 이상 신장했다”고 말했다.

◇울고=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경유가격 때문에 디젤차와 택배, 에어컨 관련 매출은 급감하고 있다. 연간 1만대의 차량이 거래되는 서구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는 최근 디젤차량의 거래가 거의 없을 정도다. LPG 차량의 경우 올해 들어 벌써 1천대 이상이 거래됐지만, 인기가 꾸준했던 디젤차는 200대 정도 거래가 됐을 뿐이다.

택배업체는 기름값과 불경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차량이 대부분 디젤을 연료로 사용해, 운송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고객들도 요금이 낮은 퀵서비스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5~6월이면 급증하던 에어컨 판매도 얼어붙었다. 서구의 A 전자제품 전문매장의 경우 지난해 5월 에어컨 18대가 판매됐지만, 올해 같은 기간 2대에 불과했다.

A 전자제품 전문매장 관계자는 “디자인과 편의성을 고려해 전자제품을 구입하던 고객들이 최근 들어서는 전력소비량을 구입조건으로 최우선으로 두고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지하철 복적 휘발유와 경유값 2천원으로 상승되는 초고유가 시대가 오면서 승용차 합께타기(카풀)가 확산되는 등 시민들 스스로 자구책을 세우고 있다. 28일 오후 광주지하철 열차에는 퇴근길 밀려드는 승객들로 인해 민원을 이루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초고유가시대 풍속도

초고유가 시대의 한 켠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생활패턴까지 바뀌었다.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자가용 출·퇴근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한 달 기준 하루 평균 버스 이용자 수는 45만9천8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만1천109명보다 1.9%(8천767명) 늘었다.

지하철도 지난 4월1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하루평균 승객 수가 4만8천8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천

## 대중교통 이용 늘고 거실 전등 줄여... ‘카풀’ 재확산

979명에 비해 22.2%(8천884명) 급증했다. 반면,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주 순환도로 1구간(북구 두암동~동구 소태동) 자동차 이용대수는 이달 셋째 주(19일~25일) 현재 하루 평균 7천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여 대 줄었다.

◇“승용차 함께 타고 출·퇴근해요”=‘카풀’ 출·퇴근 문화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서구청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자발적 참여를 위한 ‘카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청 내에 ‘카풀’ 전용 주차장(10면)도 마련했다. 현재 ‘카풀’ 참여 신청자 수는 11명, 서구 양 3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신재영(39)씨는 “친구와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면서 친구 유대도 더 좋아졌고 출퇴근 유류비가 한 달 평균 4만원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에너지 ‘아껴야 잘 살죠’=주부들이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주부 양순희(39·북구 문흥동)씨는 최근 아

파트 거실 전등 6개 중 2개를 켜다. 냉장고 온도도 보관 식품에 맞게 최적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구 운암동에 사는 주부 신효숙(31)씨는 주유소 종합정보 사이트 ‘오피넷’(Opinet) 등을 자주 방문한다. 보다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서다. 싼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8달 150원가량 절약할 수 있어 한 달 평균 5만~6만원 정도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 승용차 평생 기름값 최대 2억원 “속도 10%만 줄어도 수천만원 절약”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평생 지출해야 할 기름값이 최대 2억원에 이르며 속도를 10%만 줄어도 ‘평생 기름값’을 수천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임기상 대표)가 자동변속기어를 장착한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 배기량별 승용차의 속도, 적재량 연비 등 다양한 요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휘발유 1L 가격이 2천원

일 때 대형 승용차(연비 7km/ℓ)의 ‘평생 연료비’는 2억원으로 조사됐다.

모든 승용차의 하루 평균 주행 거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2007년도 중대형 승용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인 55km로 계산하고, 일반인의 운전시간을 35년(25~60세)으로 가정했을 경우다. 같은 조건 하에서 경차(15km/ℓ)는 9천330여만원, 소형차(11km/ℓ)는 1억2천700여만원, 중형차(9km/ℓ)는 1억5천500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 미 쇠고기 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오늘 거리농성 긴장 고조

광주와 전남지역 각계 단체와 시민들로 이뤄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가 29일 거리농성을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비상시국회의는 “29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천막농성 돌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천막농성 방침은 거리농성을 불허하는 경찰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천막농성이 강행된다면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경찰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막농성이나 거리농성을 강행한다면 이는 도로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나흘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시위에서 참가자 211명을 연행해 이 중 76명을 석방하고 135명을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또 나흘간 거리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배후 조종한 세력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오전 류우의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축산물화재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하되 불법 가두시위는 법·질서 차원에서 엄단한다”는 대응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미 쇠고기 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오늘 거리농성 긴장 고조

## 단란주점 여주인 변사 경찰, 타살 추정 수사

28일 오전 11시10분께 여주시 중앙동 Y단란주점에서 여주인 박모(45)씨가 목에 마이크 줄이 감긴 채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숨져있는 것을 건물 주인 문모(74)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박씨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지만, 성폭행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타살로 추정하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박씨의 사망 추정시간인 이날 새벽 4시께 인근 휴대전화 통화내용 확인과 함께 손님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화재경보기 안올린 아파트 일가족 4명 질식...1명 숨져

28일 새벽 4시40분께 여주시 신월동 K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자고 있던 김모(39)씨가 숨졌다.

불은 아파트 내부 33㎡를 태워 1천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진화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4대와 소방대원 31명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위층에 살던 정모(여·30)씨 일가족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다.

이번 화재는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일부 주민들은 소방차의 사이렌을 듣고 대피하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나원침 (7518) 김장두



다 좋은 건국·산업지대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 서울호선 : 02) 3445-0943

▶ 나주공점 : 061) 337-0571

## 경찰 신분증 뉴이체 도주하다 ‘덜미’

○광주북부경찰은 28일 야간 근무 중인 경찰의 신분증을 뉴이체 달아난 김모(43·북구 오치동)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밤 1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A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야간근무를 하던 북부경찰 형사과 소속 조모(31) 순경이 자신을 말리자 조 순경의 경찰 신분증을 뉴이체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을 말리던 조 순경에게 “내가 댜대 나를 말리냐”고 따지며 경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는데,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황설텔수.

○김씨는 경찰 신분증을 뉴이체 50m 가량 도주했으나 뒤쫓아온 형사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

/이종형 기자 gilee@kwangju.co.kr

시우호의 전세건물

중용 골드레이크 외원권 분양·상담

골드레이크CC

골드스파&리조트

골드레이크빌리지

19·28·38·57평형

19·28·38·57평형

19·28·38·57평형

광주화고소학교 유치부 신입생 모집광고

모집 연령: 유치부(3~5세)

제원: 학급: 200명 / 교직원: 20명 / 교실: 8명 / 운동장: 1개

원사: 교부: 200여명 / 교직원: 20명 / 교실: 8명 / 운동장: 1개

원사: 교부: 200여명 / 교직원: 20명 / 교실: 8명 / 운동장: 1개

원사: 교부: 200여명 / 교직원: 20명 / 교실: 8명 / 운동장: 1개